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외교부 http://www.mofa.go.kr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배포일시	2020.4.28
담당	산업부	신남방통상과	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 이주형 서기관(044-203-5711) 하정욱 사무관(044-203-5713)	
	외교부	동아시아경제외교과	박경진 과장(02-2100-7675) 양주현 행정관(02-2100-7706)	
담당기관	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 이성우 팀장(02-6050-3568) 코트라 투자 M&A팀 김주철 팀장(02-3460-7351)			

143개 한국기업 340명, 베트남 특별 입국을 위해 출국

- 코로나19 확산이후 단일 출국 기준 참여 기업수 기준 최대 규모 출장단 -

- 정부 · 유관기관이 함께 팀코리아로 협력하며 출장 全과정 주도 -

□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내 외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로 베트남으로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해진 가운데, **143개 기업**의 **필수인력 340명**으로 구성된 **한국 기업인 출장단**이 4.29(수) **전세기**를 통해 **베트남으로 출국**한다.

※ 베트남은 ▲2.29부터 우리 국민 15일 무비자 방문 허가 임시 중단, ▲3.22부터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일시 중단, ▲4.1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 금지 조치

○ 금번 340명 기업인 출국은 **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일 출국 기준 최대 규모로 전세기 2대로 순차 출국할 예정이며, 출장인원들은** 플랜트 건설, 공장 증설·운영 등을 위한 **대·중견·중소기업의 필수인력들로 구성**되어 있다.

* (143社) 공기업 1개, 금융업 6개, 대기업 9개, 중소·중견기업 127개(중소·중견 비중 82%)

○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**14일간의 격리**를 거친 후 **5.13(수)** 근무를 개시하게 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소규모 출장건의 경우, 개별 건별로 베측과 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, **다수 기업으로부터 출장자를 모집해 전세기 이동·방역·격리에 이르는 방안을 구상**하였고,

○ 이후 **주베트남대사관을 중심으로 동 방안의 성사를 위해 베트남 중앙·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교섭**해 왔다.

○ **한-베 양국정상이 지난 3일 전화통화**를 통해 **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정상간 공감대가 형성**된 것이 금번 입국 성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.

□ 특히, 산업부·외교부·주베(대)·복지부 등 **정부부처와** 대한상공회의소·코트라 등 **유관기관이 팀코리아로 긴밀하게 협력**하며, 입국 협의, 비자 발급, 전세기·격리호텔 섭외 등 **출장의 全과정을 직접 주도**하였다.

○ **정부관계자가 출장단과 동행**하여 기업인들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며, 출장단이 베트남에 도착한 이후에도 **격리기간동안 베트남 언어·문화·경제 등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**하는 등 관리·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**특별입국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및 향후 한-베 경제협력 관계에 큰 도움**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앞으로도 정부는 **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**하기위해 관련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하정욱 사무관(044-203-5713),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양주현 행정관(02-2100-77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